

KIA 이범호 코치 “중요한 것은 선수들과의 소통”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코치가 소통과 인내로 아쉬웠던 승리를 채운다.

지난해 퓨처스 총괄코치로 경험을 쌓았던 이범호 코치는 올 시즌에는 1군에서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 제주도 마무리캠프에서 2023시즌을 위한 큰 틀을 그렸다.

올 시즌 KIA는 ‘새 얼굴’ 나성범과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타격 부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코치는 올 시즌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 코치는 “올 시즌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기록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많이 발전했고 타격 성격이 다 상위권에 있어서 타격이 좋았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역전 시킬 수 있는 경기에서 타자들이 조금 더 경기에 맞게 역할을 했다면 5승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지표는 좋아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팀적으로 해야 할 때, 점수를 낼 수 있는 루트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이 코치는 소통을 통해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생각이다.

이 코치는 “젊은 선수들 데리고 마무리 캠프했는데 그 중간에 트레이드가 있었다. 트레이드된 선수들, 기존에 있는 선수들, 신인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설레기도 한다”며 “우선 캠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새로 온 선수들은 어떻게 치고 싶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부족한 게 뭐였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다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캠프 가서 선수들 하고 싶은 것·부족한 것 이야기 들어보겠다 선수에 자신감 심어주는 것이 중요 ... 지도자들 인내가 필요해

이러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며 “올해 2할 5푼 친 선수는 1푼, 2푼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3할 친 선수는 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큰 목표 대신 비슷하게 목표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 성적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팀을 위해 기본 전력을 다지는 것도 이 코치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1·2군에서 모두 선수들을 지도했던 만큼 이 코치는 지난 마무리캠프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방향을 동시에 그렸다. 그는 “선수들이 간절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잘치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캠프에서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 ‘간절함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을 자주 머릿속에 심어줬다. 즐겁게 할 때는 즐겁게 했지만 엄하게,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젊은 선수들이라 보니까 기존 선수를 따라잡는 게 쉽지 않겠지만 ‘경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선수들도 있어서, 기존 선수들이랑 매치 해보면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며 “성장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의 폼으로 꾸준히 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세가 좋고,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 들면 꾸준히 2·3년 한 타격폼으로 쳐야 된다. 캠프에서 선수들 스윙하는 것을 봤을 때 폼교정이나 변화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을 토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선수·지도자 모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이 코치의 이야기다.

그는 “선수들이 스윙 변화 없이 지금까지 2·3년 밀고 가도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선수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나도, 다른 지도자도 다 필요하다. 계속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지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만큼 강도 높게 진행된 마무리캠프는 선수들 성장의 큰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이 코치는 “선수들이 변화를 줄 수 있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평가를 찾을 수 있게 훈련을 많이 했다. 마무리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기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12월에 훈련을 이어가는 게 몇 년 지속되면 애버러지, 능력치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게 된다”고 선수들의 인내와 노력을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주목 올해의 사건 2위 ‘김주형 화려한 등장’

최연소 2승·프레지던츠컵 활약 버디 퍼트 후 퍼터 던지고 표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 PGA 투어닷컴이 ‘20살 신예’ 김주형(20)을 주목했다. PGA투어닷컴은 ‘올해 가을에 일어난 5가지 큰 사건’에 김주형의 화려한 등장을 두 번째에 올렸다.

김주형이 프레지던츠컵 3일째 포볼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버디 퍼트를 넣고 퍼터를 던져버린 뒤 표호하는 장면을 소환한 PGA투어닷컴은 김주형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48년 만에 노보기 우승을 차지하는 등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고 소개했다.

PGA투어닷컴이 뽑은 ‘올해 가을에 일어난 5가지 큰 사건’ 1위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의 세계랭킹 1위 복귀였다.

PGA투어닷컴은 또 ‘올해 특기할만한 기록 10선’에서는 김주형의 최연소 2승 달성을 6번째 항목으로 꼽았다.

김주형은 처음 우승한 윈덤 챔피언십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퀴드러플 보기를 적어냈다.

홀별 성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첫 번째 홀에서 퀴드러플 보기를 하고도 우승한 선수는 김주형이 처음이다.

또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으로 90년 만에 최연소 다승자가 됐다고 PGA투어닷컴은 보도했다.

21세 이전에 2승 고지에 오른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도 있었지만, 김주형은 우즈보다 6개월 더 이른 나이에 2승을 이뤘다.

특히 PGA투어닷컴은 대회 첫 번째 홀을 퀴드러플 보거나 트리플 보기를 하고 우승한 사례가 40년 동안 없었다가 김주형에 이어 매길로이가 투어 챔피언십에서 첫 번째 홀에서 3타를 잃었지만 우승해서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일이 두 번 일어났다고 ‘특이한 기록’ 2위로 꼽았다.

PGA투어닷컴은 ‘특기할 기록’으로 4개 메이저대회 우승자가 모두 20대 나이라는 사실을 1번으로 선정했고,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이 30년 만에 같은 코스에서 US아마추어 챔피언십과 US오픈을 석권한 위업을 3위에 올려놨다.

이밖에 ▲PGA챔피언십에서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7타차를 뒤집은 메이저대회 사상 최다 타수차 역전 우승 기록 수립 ▲윌 핼러토리스(미국)의 메이저대회 6연속 8위 이내 입상, 캐머런 영(미국)의 우승 없이 7번 3위 이내 입상 ▲세바스티안 무노스(콜롬비아)의 시즌 두 번 60대 이하 타수 기록 ▲소니오픈에서 72홀 257타를 치고도 우승하지 못한 라셀 헨리(미국)의 불운이 ‘10가지 특이한 기록’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들어간~다” 지난 10월 1일, 2022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한 인태내셔널팀의 김주형이 포볼 경기에서 버디 퍼트를 넣고 퍼터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우승 메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연장 합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생에 첫 우승을 차지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21일(현지시간) “메시와 PSG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조건으로 연장 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르파리지앵은 에이전트 역할을 맡은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팀 수뇌부가 정기적으로 교류해왔으며 3개월 가량의 논의 끝에 월드컵 기간인 이달 초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 중인 메시가 복귀하는 대로 구단과 만나 정확한 계약 기간과 규모가 정하면 협상이 최종 타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PSG가 유럽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데다가 메시가 파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점을 메시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사유로 봤다.

미국 CBS방송도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를 인용, 양측이 2022~2023시즌까지 동행하기로 구두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로마노는 “르파리지앵의 보도처럼 구두 합의에 도달한 게 맞다”며 “최소한 시즌 이상 동행하지만 아직 계약이 공식 체결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새로운 회의가 소집돼 계약 기간과 임금 등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PSG는 킬리안 음바페(프랑스)-네이마르(브라질)-메시로 이어지는 초호화



리오넬 메시

상급 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메시의 행선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제기돼 왔다.

유소년 시절부터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보낸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고,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구단주로 있는 미국프로축구(MLS) 인터 마이애미 합류설도 불거졌다.

르파리지앵은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품을 재정적 역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메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었다.

메시는 이번 대회 7골, 3도움을 기록해 대회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됐다. /연합뉴스

4750억 계약 에런 저지, 뉴욕 양키스 16번째 주장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초대형 계약을 맺은 강타자 에런 저지(30)가 구단 사상 16번째 주장으로 선임됐다.

양키스 구단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저지와 9년간 3억6000만달러(약 4750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그를 주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할 스타인브레너 양키스 구단주는 “저지가 없는 양키스는 상상할 수 없다”라며 주장직을 제안했고, 저지는 “깜짝 놀랐다. 역대 주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100년이 넘는 양키스 구단 역사상 저지에 앞선 주장은 15명뿐이다.

저지 직전 주장은 양키스의 간판 유격수였던 데릭 지터로 2003~2014년까지 팀을 이끌었다.

지터가 은퇴한 뒤 8년간 공석이었던 양키스 주장은 팀의 간판타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저지에게 넘어왔다.

저지는 2022시즌 62홈런을 쏘아 올려 61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에런 저지

시즌 뒤 FA가 된 저지의 이적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양키스와 극적인 합의에 성공하며 원소속팀에 잔류했다.

저지가 받게 되는 총액은 역대 FA 사상 최고액이며 평균 연봉 4000만달러는 맥스 셔저와 저스틴 벌랜더(이상 4333만3333달러·뉴욕 메츠)에 이어 세 번째다. /연합뉴스